

# “글로벌 역량 갖춘 리더 양성”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 1년 인터뷰

## 국제교류 활동 세계민주시민의식 함양 촉진한 정책...자치·혁신·연구학교 추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해 세계의 문화와 소통하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며 “창의성을 갖춘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아이도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년을 평가한다면

▲광주시민과 약속한 66개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지난 4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 365 스타디 카페 등 맞춤형 교육이나 학생 야외 버스킹 등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착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인권, 평화·통일, 역사·문화, IT(정보기술)·AI(인공지능), 언어일반, 문화·예술, 진로·직업, 해외 봉사 분야로 나눠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31명의 학생이 미국·호주·중국·카자흐스탄·탄자니아를 방문해 광주를 알리고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벌인다.

-학교에 스타디 카페형 365-스타디움을 설치했는데 반응은 어떤지.

▲학생 눈높이 공부방인 ‘365-스타디움’은 독서실과 카페를 결합한 공간으로 학교별 주력 학습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했는데 만족도가 높다. 개인별 학습은 물론, 토론과 온라인 학습도 가능하다. 학생자치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다.

방과 후 보충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등 학생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광주형 미래학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광주형 미래 학교는 자치학교, 혁신학교, 연구학교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이 주도하지 않고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한다. 당초 45개교를 지지학교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107개교가 지원했다. 학교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

-사회변화에 대비한 미래교육 방향은.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교교육에 도입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겠다. AI중점도시 광주에 걸맞게 지역 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 실천을 바탕으로 ‘기술과 가치’가 ‘진로와 직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학교 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자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이 교육을 주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키워나가겠다. 학교 자치기구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올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소망은.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향상을 위해 365 스타디움과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야외 버스킹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교육에 대비해 AI교육을 강화하고, AI팩토리 구축, 태블릿 PC 보급 등을 추진한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미래교육 선도 모델 만들 것”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취임 1년 인터뷰

##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차질없이 추진 다문화 학생 언어·문화·역사 배우기 지원

“전남교육 대전환의 실질적인 원년, 지역이 중심이 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남은 작은 학교가 많고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오히려 기회로 삼아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전남교육 대전환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는 계획했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공약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상황 등으로 인해 모든 학생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한다. 정부와 지급 대상, 사용처 등에 대해 사회보장서비스 협의를 마치면 조세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미래 교육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계획은.

▲‘미래 교육’이 시대적 화두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해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5월 교육부와 공동주최로 글로벌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선도모델은 물론, 전 세계 미래 교육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도 초청해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도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시대를 맞아 전남교육청이 나가야 할 방향은.

▲다문화가정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풍도를 바탕으로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 글로벌시대 우리 전남의 중요한 자산이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이주여성을 활용해 이중언어 교육을 확대·강화하려고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언어·문화·역사 배우기 프로젝트와 ‘엄마나라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최근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입시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때 전남교육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학생 적성과 성적을 고려해 수시·정시전형별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며 진학을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도내 5개 시·군에 대입 지원 전문인력인 대입지원관 등이 상주하는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해 진로·진학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EBS와 함께

수능 출제 연수를 통해 300여명의 모의고사 출제 교사를 양성하고, EBS 연계교재와 교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실전 문항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수능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활성화 방안은.

▲올해부터 학생 중심의 환경보호 실천 학습 프로그램인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지도교사 역량 강화 및 예산을 지원하고, 영·산·강 디지털 생태탐사 지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산·강과 내 고장의 생태를 복원하는 관심과 바람을 일으켜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

-남은 한 해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소망은.

▲전남교육 대전환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 계획했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앞당기겠다. 전남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어나가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 전남의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해 지역의 미래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 예산 102억여만원 집행

### 협치진흥원, 기관 38곳 방문 현장 컨설팅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대안교육 관련 예산으로 모두 102억 7358만원을 집행한다.

2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협치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시교육청은 대안교육 관련 지원 예산으로 모두 102억 7358만원을 편성했다.

협치진흥원은 이 가운데 사업별 예산 8억 8050만원을 지난 3월 대상 기관에 지원했다. 나머지 금액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은 모두 38곳에 달한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6곳, 학업중단속려제 전문(상담)기관 15곳,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5곳, 대안교육기관 12곳 등이다.

협치진흥원은 대상기관을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살피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학생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안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협치진흥원은 시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사업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홍보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 방송했다. 올해도 대안교육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김진구 단장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과 함께 광주시교육청이 목표하고 있는 다양성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 여론을 더 많이 수렴해 광주다운 대안교육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호남대학교, ‘대학-AI 특성화부문’ 4년 연속 수상

### 산자부·중소기업부 후원 국가서비스 대상

‘AI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오른쪽)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2023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제에서 4년 연속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을 받았다.

호남대학교는 최근 JW메리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AI융합 혁신교과과정 개편과 AI캡 퍼스 구축을 통한 전교생 AI융합인재 양성, ‘국민 AI융합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AI대중화 교육’ 선도 등의 탁월한 공로에 인정받아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호남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2022에도 이 상을 수상했다. 국가서비스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제로 ▲서비스 경쟁력 및 비전 ▲산업적·사회적 기여도 ▲운영성과 ▲지속 가능 경영계획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1978년 ‘육영보국’을 설립이념으로 반세기 동안 시대를 앞서 혁신교육을 이끌어온 호남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드림(DREAM) 2028’ 장기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키워 ‘넥스트 챔피언’을 양성하고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등을 통해 ‘학생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의 비전을 실현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역량을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